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반복적 행위를 통한 심리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권 봄 이

반복적 행위를 통한 심리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권 봄 이

인 준 서

권봄이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 내면의 심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는 어떠한 불안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다리를 댄다던지,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 종이에 무의미한 낙서를 하는 행동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행위는 순간 불안감을 잠재워 주는 역할을 한다. 본인의 예술적 표현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반복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중 종이말기 작업을 통해 억압된 내면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소외와 불안 속에서 오는 심리적인 자기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반복은 자연에서도 나타난다. 사계절이 되풀이되고, 꽃과 나무가 피고 지며, 물이 순환되어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듯이 본인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은 첫 번째,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에 대한 작가들을 연구해보고, 본인작업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행위를 통한 심리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환과도 연관 지어 이야기 하고 있다. 두 번째, 종이를 이용한 반복적인 형태표현과 색채 표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예술작품에서의 반복행위에 의한 자아치유	3
2) 반복과 순환에 대한 고찰	6
2. 작품표현방법	7
1) 종이의 조형화	7
2) 반복에 대한 형태표현	8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연구	9
3. 작품분석	10
III. 결 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순환(생각의 순환 I), 종이, 34x34x20(cm), 2012	10
【작품 2】	순환(생각의 순환 II), 종이, 44x36x24(cm), 2013	12
【작품 3】	순환(생각의 순환 III), 종이, 43x40x16(cm), 2013	14
【작품 4】	순환(생각의 순환 IV), 종이, 가변설치, 2013	16
【작품 5】	순환(반복적 드로잉), 캔버스에 종이, 가변설치, 2013	18
【작품 6】	순환 I, 캔버스에 종이, 92x74x6(cm), 2013	20
【작품 7】	순환 II, 캔버스에 종이, 92x74x6(cm), 2013	22
【작품 8】	순환(물의순환 II), 캔버스에 종이, 42x33x8(cm), 2012	24
【작품 9】	순환(신비, 차분함), 캔버스에 종이, 60x60x7(cm), 2012	26
【작품 10】	순환(즐거움, 희망), 캔버스에 종이, 60x60x7(cm), 2012	28
【작품 11】	순환(조화, 자연), 캔버스에 종이, 60x60x7(cm), 2013	30
【작품 12】	순환(활동, 정열), 캔버스에 종이, 60x60x7(cm), 2013	32

I. 서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급격한 변화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와 장애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¹⁾

심리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음악 감상, 글쓰기, 명상, 운동, 그림그리기 등이 있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심적 치유는 반복적 종이말기라 할 수 있다. 반복적 말기의 행위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어느 한 가지 행동에 몰두하는 동안 여러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있어 심리적, 신체적 정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을 통하여 개인을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 내며, 치유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²⁾

본인의 종이 말기를 통한 작품의 특성으로는 치유와 순환, 개인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대한 치유와 순환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반복적 행위로 만들어진 원의 형태는 순환과 치유를 나타내고 있고, 원의 균집과 분리된 모습으로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진 형태는 사회나 자연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첫째,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 작업에서의 반복 행위가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반복되는 자연 순환이 본인의 작업에 이미지 적으로 어떻게 표현 되었

1) 민병배·이한주, 「강박성 성격장애」, 학지사, 2005, p3

2) 김진숙,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KEAPA Press, 2001, p3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종이말기를 이용한 본인의 작품 분석으로 종이라는 재료를 통한 조형적 표현의 특징, 색채연구, 작품 속 내제된 의미,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배경

1) 예술작품에서의 반복행위에 의한 자아치유

반복(反復)이란 ‘같은 것을 되풀이 한다’를 뜻한다. 현대 미술에서 반복은 여러 가지 표현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단순한 형태의 나열, 이미지의 반복뿐만 아니라 행위로써의 반복 등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³⁾의 바느질 작업은 어릴 적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신체적 행위를 통해 과거로부터의 고통과 공포를 역으로 표출하며 내적 자아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⁴⁾ 바느질, 뜨개질과 같은 신체동작의 반복적인 방법은 이를 통해 안정감을 갖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욕구불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⁵⁾ 두 번째 귄터 위커[Gunter Uecker]⁶⁾의 못 회화 작업은 반복적으로 못을 박는 행위를 함으로써

3)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 남쪽 비에브르 근처의 앙토니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태피스트리를 수선, 제조하여 판매하는 부모의 일을 도우며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보였다. 부르주아의 작품 특징은 대립적인 여러 양식들이 중첩, 확산되며 과거의 모티프들이 새 작품의 맥락에 계속 번안 흡수된다는 점이다. 그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관계란 신체와 성적인 모티프 사이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한 삶의 기억에 의존한다. 어렸을 때 경험한 아버지와 가정교사와의 불륜과 그로 인한 적개심,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그의 작품에 담겨 있다.

4) 국립현대미술관 편, 「루이즈 부르주아:기억의 공간」, 삶과 꿈, 2000, p49

5) 김진숙, 앞의 책, p153

6) 귄터 위커[Gunter Uecker]는 독일의 현대미술가로, 1930년 독일의 메클렌 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동독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49~1953년까지 동독 베를린 바에센제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외적인 환경, 사회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자 함이다. 위커의 못을 박고 빼는 예술적인 상징의 표현 행위를 통하여 자신과 사회의 문제와 상황을 반복적인 행위와 형상으로서 표현함으로 회복과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⁷⁾

우리는 우리의 안팎에서 지극히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반복들에 직면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강요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반발일 수 있다. 본인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느 순간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 중,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주된 대화내용은 현대사회에 맞게 ‘진도’를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취업과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였다.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만남이 지루하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릴 때는 취업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 들어가서는 업무와 직장상사에 대한 이야기, 그 후에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진도를 나가는 반복적인 삶이다. 이러한 시간은 시스템화 되는 현대사회의 연장인 것이다. 반복들은 우리의 안팎에서 험벗고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반복을 다시 낳는다.⁸⁾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일 수 있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왔을 상황이다. 본인은 소외의 과정이 시작될 무렵 주변의 얇고 평면적인 오브제들을 말고 찢기 시작했다. 들뢰즈에 의하면 반복이란 ‘습관’이고, 현재로써 파악되는 순간의 계기(繼起) 그 자체 이다.⁹⁾ 이 반복적인 행위는 종교 신도들이 목주를 돌리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 비워내는 소외의 과정에 대한 나만의 탈출구였다. 습관적으로 나온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성장하였다. 그의 작품은 붓이나 캔버스가 아닌 못과 나무, 돌과 재(災)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1957년도부터 ‘못’을 매체로 사용하여 지금까지 약 200톤의 못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못’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통과 싸움으로 얼룩진 세속의 한 가운데서 치유와 정화의 상징으로 이런 소재들을 골랐다.

7) <http://intempus.tistory.com/849>

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믿음사, 2004, p18-19

9) 우노 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이정우·김동선 옮김, 그린비, 2008, p109

함으로써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면서 심리적으로 순환됨을 느꼈고, 이러한 행위는 본인 자신을 답답한 공간 안에서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습관이라고 하는 제 1의 반복은 쾌락을 둘러싸고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과 관조에 관계한다.¹⁰⁾ 반복되어 나오는 노동과도 같은 행위는 본인이 가지는 일상생활의 권태로움, 무의미함을 무마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개인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러한 무리 속에 동화되지 못하는 곁도는 삶에 대한 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우노 구니이치, 앞의 책, p111

2) 반복과 순환에 대한 고찰

‘순환(Circulation)’은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돌아¹¹⁾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본인의 작품 제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순환(Circulation)’은 반복적인 행위의 내면심리 순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자연과의 연결고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작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물’은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흘러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듯 물은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환경을 정화하고 있으며, 유동적이고 순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물의 특징은 본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표면적 개념을 넘어 상상력의 모태가 되어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순환’은 어떤 흐름을 만드는데, 본인은 이 형태를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의 형태를 만드는 이유는 의도치 않게 원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연 또한 사람이 의도 하지 않아도 흐르고 반복되며, 물이나, 계절, 시간이 흐르고 반복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하나의 이치이다. 본인은 이러한 순환의 형태를 ‘원’으로 표현하였고 순환을 표현하는 기호로 정의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순환’은 종이말기를 통한 행위의 반복과, 행위 속에서 나온 이미지의 반복과 같은 단순 반복의 이유도 있지만, 물도 순환하면서 깨끗해지고, 꽃의 피고 지는 계절과 시간의 반복, 그 속에서의 인간의 성장도 의미하고 있다.

11) NAVER 국어사전, 「순환」

2. 작품표현방법

1) 종이의 조형화

종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친숙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종이는 습관적 행위에서 시작된 기본적인 재료인데 카페에서 나눠주는 영수증, 가지고 다니는 드로잉 북이나, 노트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문명세계에서 종이는 매우 흔한 물건이 되었으나, 발명 당시에는 정보 저장이라는 유용성 못지않게 종이가 지닌 정신적, 미적 특색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었다고 한다.¹²⁾

본인의 작업에서 [순환-생각의 순환] 시리즈에서는 얇은 종이 면들이 반복적으로 말려 여러 가지 형태의 묵직한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양한 전자적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라져 가는 매체 종이와 무한한 겹을 통하여 오래된 책자나, 나무의 나이테를 연상시킨다. 나무의 섬유소로 만들어지는 종이 자체가 물의 형태로 생산되는데, 본인의 작업에서 다양한 원의 형태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본인 작품의 제목에서 계속 등장하는 '순환'은 종이의 원초적인 재료가 가지는 나무의 재생적 특징으로도 의미가 된다. 나무는 지하와 지상 등 서로 분리된 차원들을 연결하며 끝없는 변화를 통해 지구의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소들을 순환시키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서 종이라는 재료는 인공적 예술작품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고 있으며, 종이는 얇고 평면적 이면서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종이라는 가볍고 평면적인 재료의 말림과 겹침을 통하여 단단함과 응집력, 무한함을 보여주고 있다.

12) 오명희, 「현대섬유예술의 종이작업에 관한 고찰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p3

2) 반복에 대한 형태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반복적인 개체와 요소들의 형태적 확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행위자체의 반복도 의미하지만 이미지 상에 나타나는 형태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 형태와 형태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 반복은 동일한 요소와 대상이 둘 이상 배열되어 나타나고 반복이나 연속되는 리듬의 변환으로 꾸며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형식의 구성이 반복되면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감을 주게 되어 리듬이 생기며, 시각적으로는 힘의 강약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¹³⁾ 본인의 작품에서 [순환-반복적 드로잉]은 명백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마치 시계태엽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와도 같고, 세포의 조직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형태이기도 하다. 단순한 반복은 단조로움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반복 속에서 얇은 종이의 면들이 빙빙 돌아가며 돌출된 부분이 발견되는데 종이 말기뿐만 아니라 빼기와, 반복적인 형태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하여 드라마틱한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이나 반복된 구조는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활동되는 미학적 질서의 기본원리이며 자연 질서의 보편적 형태이다.¹⁴⁾

[순환- 물의 순환]에서는 물방울이나 물거품 같은 둥근 형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마치 자연 질서의 형태를 보여주듯 반복적인 형태가 고여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다.

본인이 만들어 내는 원형의 형태는 개체들이 모여 크게 군집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반복적이고 순리대로 흐르는 자연의 순환과도 같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반복 속에서 시각적으로 밝게 표현하였다.

13)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2001, p34

14) 윤난지, 「형태 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 p113

3) 작품표현에서의 색채연구

색을 볼 때에는 그 색과 관련된 사물이나 인상을 기억하게 되거나 특정문화와 관련지어 연상하게 된다. 특히 색의 연상은 지역이나 환경, 계절,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색이 가진 고유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온 인간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¹⁵⁾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순환은 형태와 행위뿐만 아니라 색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의 눈은 색이 가지는 아름다움에 매혹된다. 색은 촉각, 미각과 함께 색깔에 대한 피상적 인상은 경험 속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¹⁶⁾ 본인의 작품에서 특히 인간의 감성에 영향력이 큰 색은 상징적인 차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작품에서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푸른 계열로 이루어진 [순환-신비, 차분함], 녹색 계열의 [순환-조화, 자연], 노랑 계열의 [순환-즐거움, 희망], 붉은색 계열의 [순환-활동, 정열]이 그것들이다. 각각의 색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푸른색의 경우 바다, 차가움, 신비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녹색계열은 자연, 휴식, 평정의 의미, 노란색은 명량, 환희, 희망, 붉은색은 정열, 태양과 같은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 산, 꽃과 같은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형상을 연상시키고 있다. 본인이 작품에서 표현하는 그라데이션은 빗물이 강이 되고,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색과 형태를 통해서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색채 자체는 소재에 대위법을 제공하며, 그 자체에 무한한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¹⁷⁾ 본인은 작품형성배경에서 나타난 무거운 내용을 ‘색’을 통해서 활동적이고 리드미컬하며, 대상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표현하고 있다.

15) 이선호·이은경·김민기·오화석, 「COLORIST」, 미진사, 2010, p106

16)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86, p51-55

17) 칸딘스키, 앞의책, p68

3. 작품분석



【작품 1】 순환(생각의 순환 I)

【작품 1】 순환(생각의 순환 I)

연도 : 2012

크기 : 34x34x20(cm)

재료 : 종이

제작방법

1. 크라프트 물 테이프(포장용 테이프)를 원지름 약 0.5cm로 시작하여 원형으로 종이를 만든다.
2. 지름 약 30cm의 원형이 형성되면 종이를 위아래로 서서히 빼며 모양을 만든다.
3. 모양의 각을 잡은 후, 형태의 아래 부분에 물을 칠하여 굳힌다.
4. 3~4회의 물을 칠한 후, 종이 마감제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얇은 종이의 면들로 이루어진 덩어리는 둥근 중심 부분에서 시작하여 외곽으로 가면서 각을 형성한다. 이 형태는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종이 띠에 수많은 글자들이 새겨 있는데, 이 글자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반복적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사소한 표현방식이다.



【작품 2】 순환(생각의 순환Ⅱ)

【작품 2】 순환(생각의 순환Ⅱ)

연도 : 2013년

크기 : 44x36x24(cm)

재료 : 종이

제작방법

1. 크라프트 물 테이프(포장용 테이프)를 원지름 약 0.5cm로 시작하여 원형으로 종이를 만든다.
2. 지름 약 40cm의 원형이 형성되면 종이를 위아래로 서서히 빼며 모양을 만든다.
3. 모양의 각을 잡은 후, 형태의 아래 부분에 물을 칠하여 굳힌다.
4. 3~4회의 물을 칠한 후, 종이 마감제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얇은 종이의 면들로 이루어진 덩어리는 둥근 중심부분에서 시작하여 외곽으로 가면서 각을 형성한다. 이것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의 형태를 형상화 하고 있다. 위 아래로 돌출된 이 형태는 초현실적인 건축물과도 같으며, 무한하게 겹쳐진 종이는 고목의 나이테를 연상시킨다.



【작품 3】 순환(생각의 순환Ⅲ)

【작품 3】 순환(생각의 순환Ⅲ)

연도 : 2013년

크기 : 43x40x16(cm)

재료 : 종이

제작방법

1. 크라프트 물 테이프(포장용 테이프)를 원지름 약 0.5cm로 시작하여 원형으로 종이를 만든다.
2. 지름 약 38cm의 원형이 형성되면 종이를 위아래로 서서히 빼며 모양을 만든다.
3. 모양의 각을 잡은 후, 형태의 아래 부분에 물을 칠하여 굳힌다.
4. 3~4회의 물을 칠한 후, 종이 마감제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종이의 얇은 면들을 둥글게 말아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삼각형의 도자기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것은 무의식 속 종이말기에서 형성된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의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다. 동심원에서 시작된 면들은 메아리의 퍼짐을 연상시킨다.



【작품 4】 순환(생각의 순환Ⅳ)

【작품 4】 순환(생각의 순환Ⅳ)

연도 : 2013년

크기 : 가변설치

재료 : 종이

제작방법

1. 크라프트 물 테이프(포장용 테이프)를 원지름 약 0.5cm로 시작하여 원형으로 종이를 만든다.
2. 지름 약 70cm, 100cm, 130cm의 원형이 형성되면 종이를 위아래로 서서히 빼며 모양을 만든다.
3. 모양의 각을 잡은 후, 형태의 아래 부분에 물을 칠하여 굳힌다.
4. 3~4회의 물을 칠한 후, 종이 마감제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얇은 종이의 면들로 이루어진 덩어리는 위아래로 돌출된 형태를 형성하며, 마치 섬을 떠오르게 하는 설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이라는 재료 자체로도 작품에 자연스러움을 주고 있으며, 색감이나, 형태, 설치방식에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5】 순환(반복적 드로잉)

【작품 5】 순환(반복적 드로잉)

연도 : 2013년

크기 :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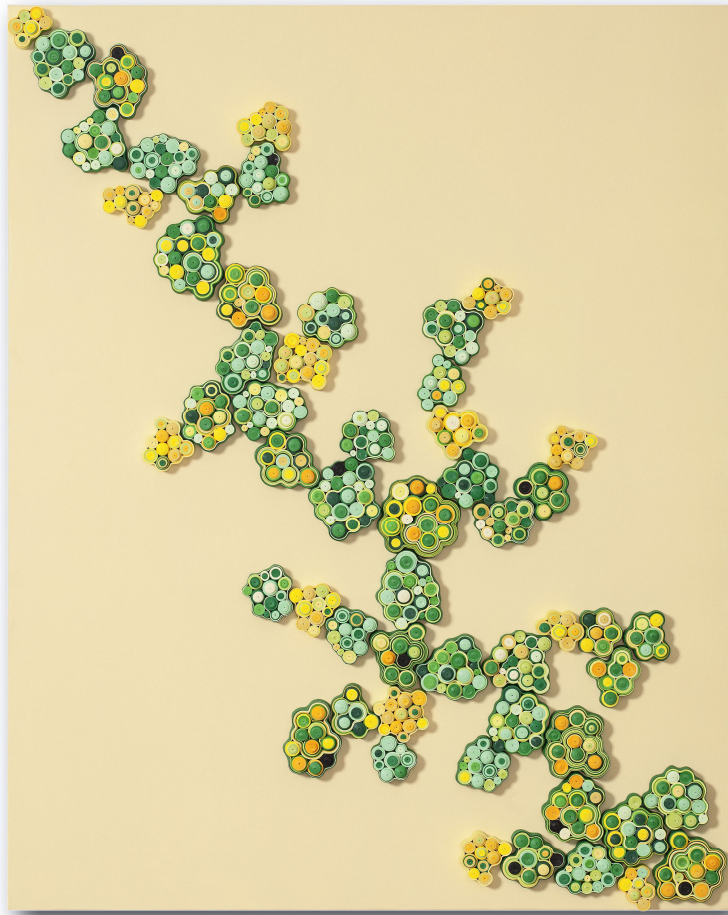
재료 : 캔버스에 종이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이어 붙이고, 색지로 띠를 두르며 확장시킨다.
5. 완성된 덩어리의 원형 형태를 들출되게 밀어낸다.
6.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마치 세포분열을 떠오르게 하는, 파스텔 톤의 색상들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드로잉이다. 이 드로잉들은 즉흥적으로 행해지는 색감과, 작은 동그라미들이 여러 차원에서 벌어지는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개별적 형태들이 모여 밝고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다.



【작품 6】 순환 I

【작품 6】 순환 I

연도 : 2013년

크기 : 92x74x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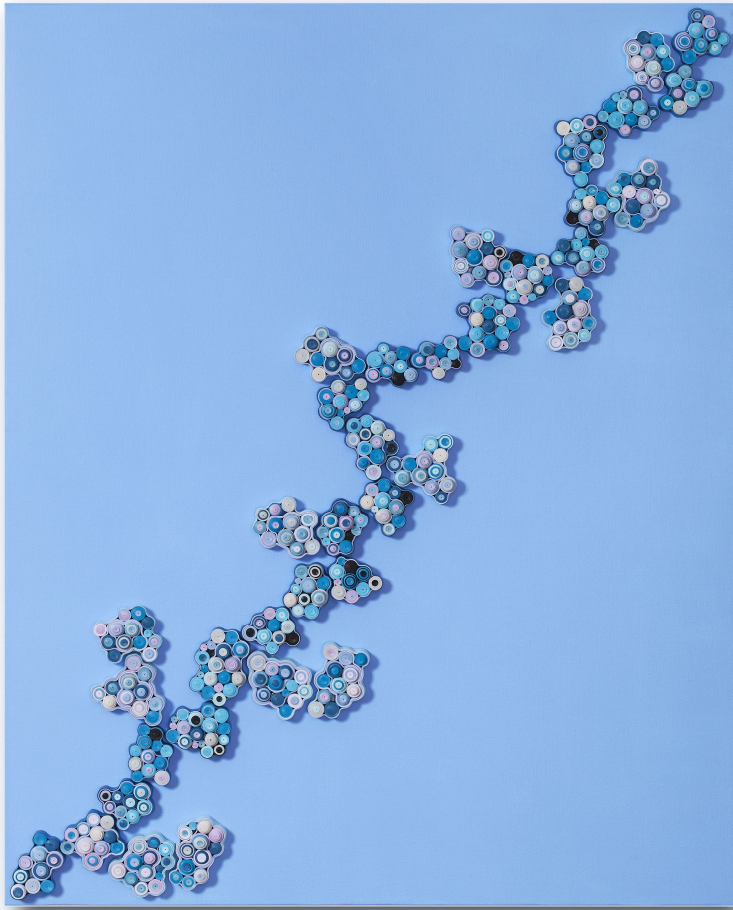
재료 : 캔버스에 종이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이어 붙이고, 색지로 띠를 두르며 확장시킨다.
5. 완성된 덩어리의 원형 형태를 돌출되게 밀어낸다.
6.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로 말려진 원형의 단위들은 균집형태를 이루며 증식하고 있고, 원의 사이를 엮어주며 흐르는 또 다른 선들은 끝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노란계열과 녹색계열의 색상들이 줄기에 열매가 피어나듯 뻗어나가고 있다.



【작품 7】 순환II

【작품 7】 순환Ⅱ

연도 : 2013년

크기 : 92x74x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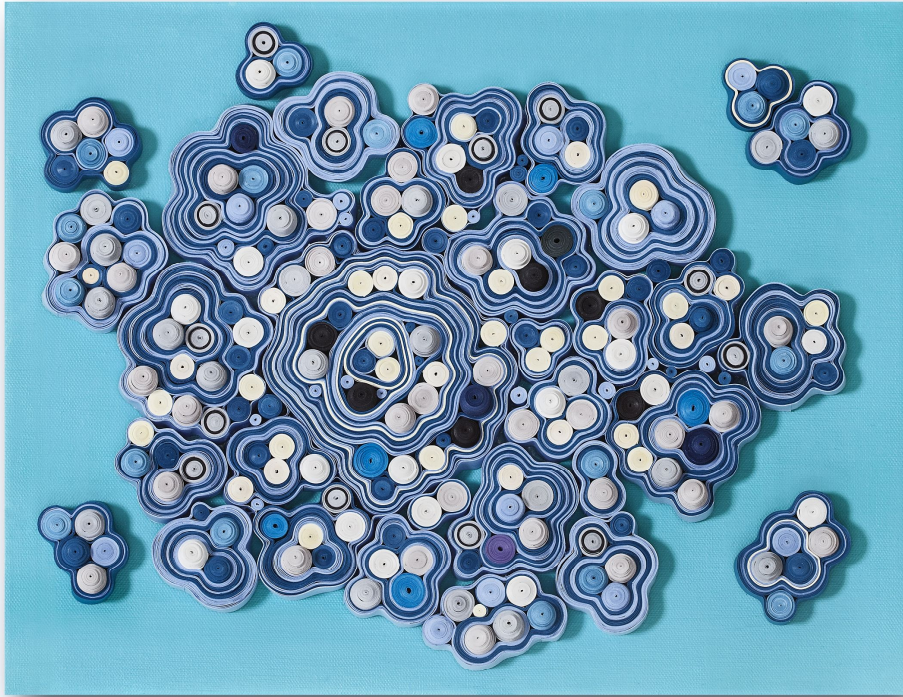
재료 : 캔버스에 종이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이어 붙이고, 색지로 띠를 두르며 확장시킨다.
5. 완성된 덩어리의 원형 형태를 돌출되게 밀어낸다.
6.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로 말려진 원형의 단위들은 균집 형태를 이루며 증식하고 있고, 원의 사이를 엮어주며 흐르는 또 다른 선들은 끝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푸른 계열의 색상들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작품 8】 순환(물의 순환II)

【작품 8】 순환(물의 순환Ⅱ)

연도 : 2012년

크기 : 42x33x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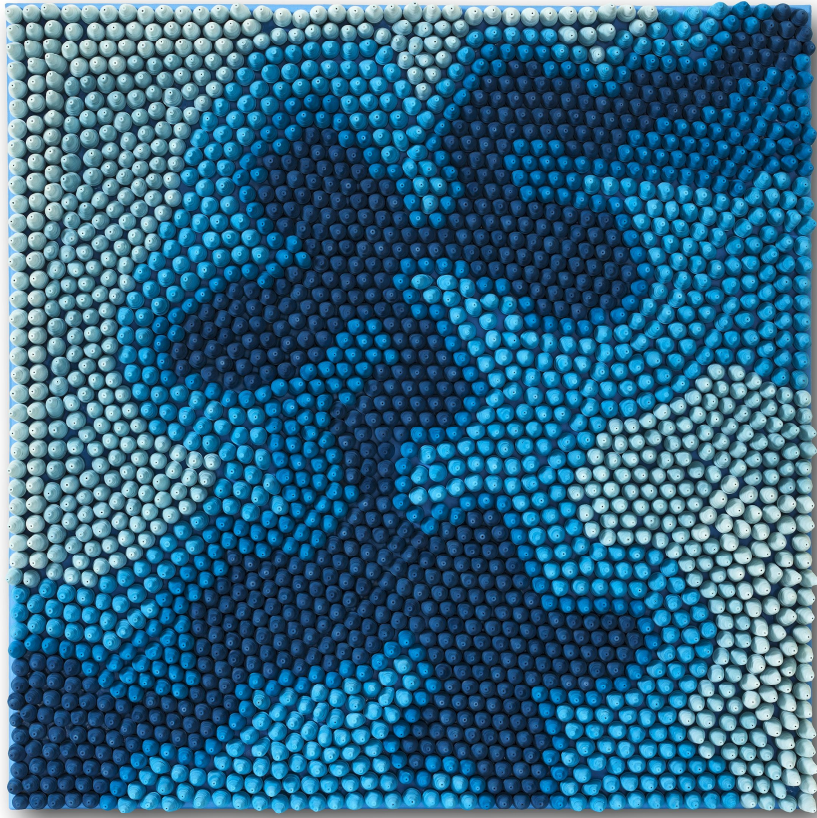
재료 : 캔버스에 종이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이어 붙이고, 색지로 띠를 두르며 확장시킨다.
5. 완성된 덩어리의 원형 형태를 돌출되게 밀어낸다.
6.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손가락 한마디의 크기로 말려진 원형의 단위들은 균집 형태를 이루며 증식하고 있고, 원의 사이를 엮어주며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선들은 끝없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푸른 계열의 색상들이 순환되는 모습을 띄면서, 이것은 물이 고여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9】 순환(신비, 차분함)

【작품 9】 순환(신비, 차분함)

연도 : 2012년

크기 : 60x60x7(cm)

재료 : 캔버스에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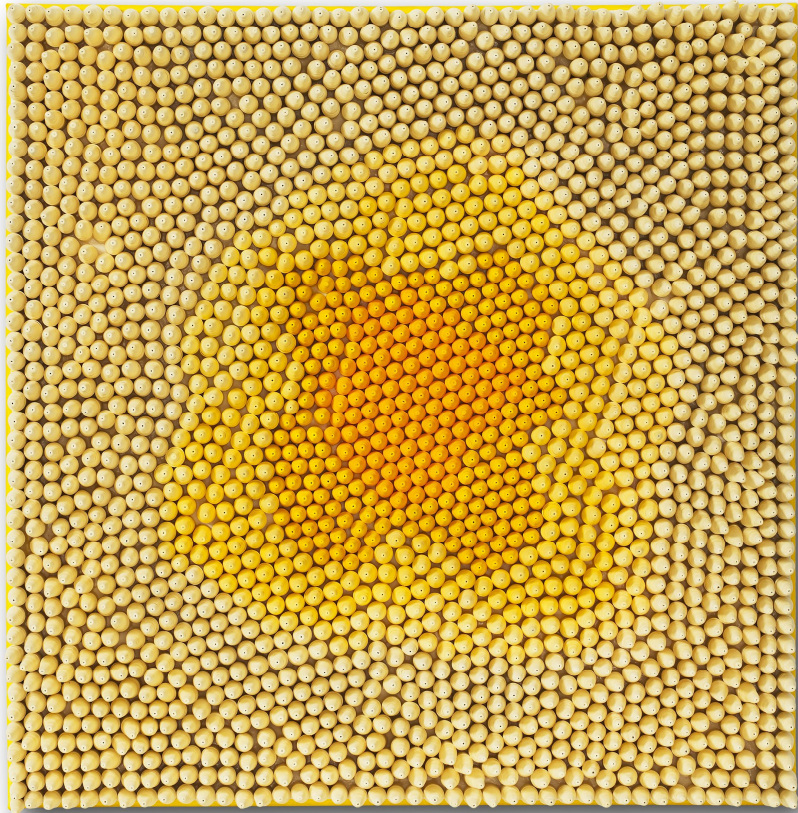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2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높이 3~5cm로 돌출되게 밀어낸다.
5.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본인의 작품 중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색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둔 작품이며,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색의 확장과, 반복을 보여준다.

‘순환(신비, 차분함)’에서는 푸른 계열의 원뿔형태가 군집되어 증식하며 물을 형상화 하고 있다.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파란색은 차가움, 명상, 신비로움, 바다를 상징하고 있으며, 가운데에서 시작한 물의 퍼짐은 다양한 높낮이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10】 순환(즐거움, 희망)

【작품 10】 순환(즐거움, 희망)

연도 : 2012년

크기 : 60x60x7(cm)

재료 : 캔버스에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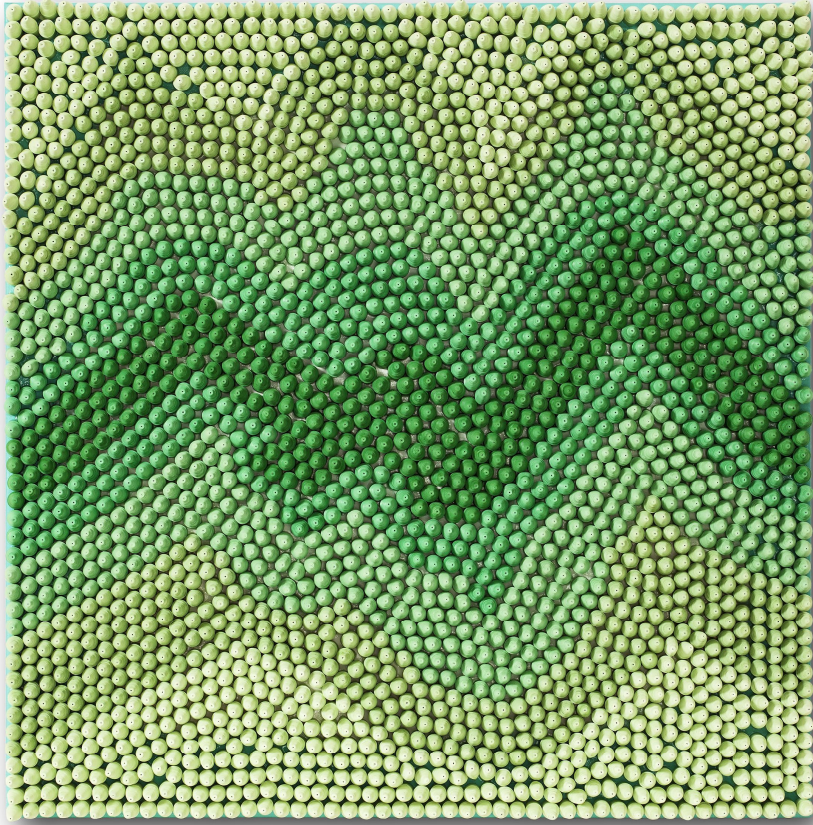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2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높이 3~5cm로 돌출되게 밀어낸다.
5.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본인의 작품 중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색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둔 작품이며,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색의 확장과, 반복을 보여준다.

‘순환(즐거움, 희망)’에서는 노란계열의 원뿔형태가 균집되어 증식하며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노란색은 어린이와 같은 즐겁고, 희망적인, 꿈을 상징하고 있다.



【작품 11】 순환(조화, 자연)

【작품 11】 순환(조화, 자연)

연도 : 2013년

크기 : 60x60x7(cm)

재료 : 캔버스에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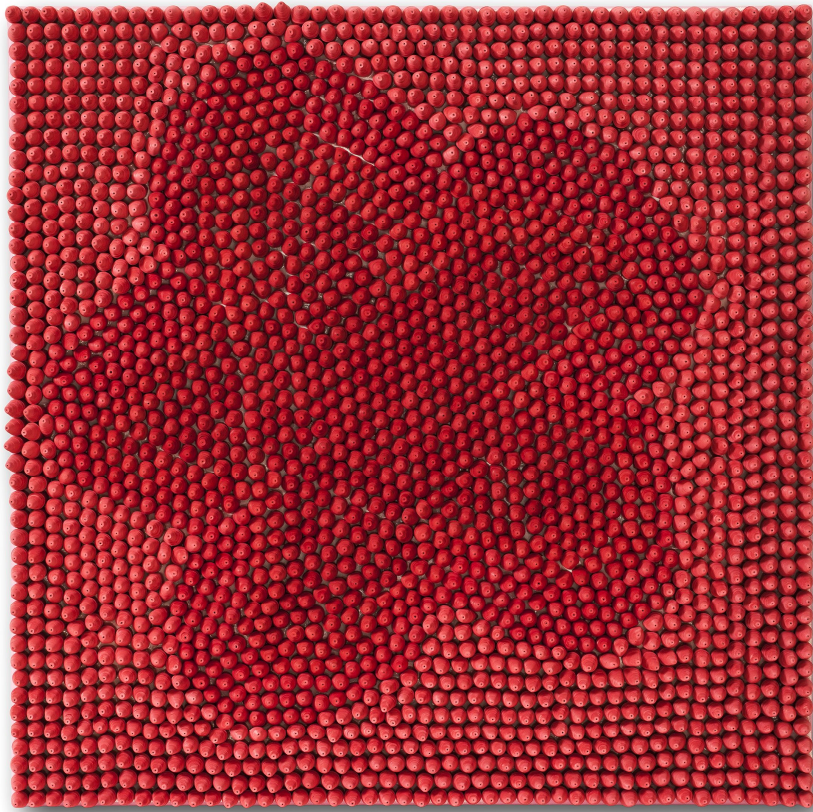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2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높이 3~5cm로 돌출되게 밀어낸다.
5.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본인의 작품 중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색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둔 작품이며,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색의 확장과, 반복을 보여준다.

‘순환(조화, 자연)’에서는 녹색계열의 원뿔형태가 군집되어 증식하며, 원추형으로 뿔쳐 나온 원통들은 식물의 새순이 성장하는 산의 형상을 띄고 있다.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는 녹색은 조화와 자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 12】 순환(활동, 정열)

【작품 12】 순환(활동, 정열)

연도 : 2013년

크기 : 60x60x7(cm)

재료 : 캔버스에 종이

제작방법

1. 캔버스에 채색을 한다.
2. 80g의 다양한 색상의 색지를 폭 1.5~2cm의 간격으로 재단한다.
3. 약 90~150cm길이의 색지를 원형으로 말아서 고정시킨다.
4. 원형으로 말아놓은 형태를 높이 3~5cm로 돌출되게 밀어낸다.
5. 채색해 놓은 캔버스에 완성된 형태들을 붙인다.

작품설명

본인의 작품 중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색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둔 작품이며,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색의 확장과, 반복을 보여준다.

. ‘순환(활동, 정열)’에서는 붉은 계열의 원뿔형태가 균집되어 증식하며 꽃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붉은색은 정열, 활동, 애정을 의미하고 있으며, 높은 채도의 색상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Ⅲ. 결 론

예술가는 자신의 내면 감정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창작활동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예술 활동이 보여주는 ‘치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본인은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현대사회에서 오는 소외감을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답답함을 표출함으로써 내적 감정의 승화작용으로 치유하고, 극복하며, 복잡한 내면심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손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작품을 형상화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손의 움직임은 감정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에서 반복적인 표현은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형태에서 나타나는 ‘순환’의 이야기도 하고 있으며, 본인은 순환의 형태를 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원의 형태는 자연의 반복과 흐름으로도 연결시켜 순환을 표현하는 기호로 정의 하고 있다.

본인의 행위를 표현하는 재료는 종이인데, 이것은 전자적 인터페이스에 의해 사라져 가는 종이를 이용하여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재료의 인식을 넣어 주며 종이의 자연과 회귀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행위에서 오는 심리적 내용뿐 아니라 색에서 오는 인간의 사고와 심리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술 활동은 조형적 언어를 통하여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현실을 소통하게 하고 내면의 갈등을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하여 자아성찰로 순환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인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치유의 의미를 깨닫고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밝고 율동적인 이미지의 작품으로 리드미컬한 삶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 언급되는 ‘순환’처럼 물도 순환하면서 깨끗해지고, 계절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성장하듯 본인은 이러한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앞으로 창의적 조형 활동의 반복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국립현대미술관 편, 「루이즈 부르주아:기억의 공간」, 삶과 꿈, 2000.
- 김진숙,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KEAPA Press, 2001.
- 민병배·이한주, 「강박성 성격장애」, 학지사, 2005.
- 우노 구니이치, 「들뢰즈, 유동의 철학」, 이정우·김동선 옮김, 그린비, 2008.
- 윤난지, 「형태 반복의 방법과 의미」, 월간미술, 1992.
- 이선호·이은경·김민기·오화석, 「COLORIST」, 미진사, 2010.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믿음사, 2004.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86.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2001.

《논문 및 학술지》

- 오명희, 「현대섬유예술의 종이작업에 관한 고찰 :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홈페이지 및 기타》

- 두산백과사전
- <http://intempus.tistory.com/849>
- Naver 국어사전, 「순환」

ABSTRACT

The Study on Psychological Expressions Through Repeated Behaviors

-around my works-

Kwon, Bom-e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s behaviors are closely related to his inner psychology, and some behaviors are formed by a certain sense of anxiety. For example, we can easily see the unconscious behaviors like repeatedly shaking his/her legs or biting his/her nails or meaninglessly scrabbling. These unconsciously repeated behaviors take the role momentarily reliving the sense of anxiety. My artistic expression tells about the habitually repeated behaviors generated from the unconsciousness, and of them I tell the story about the psychological self-healing generated out of the feelings of exclusion and anxiety by repeatedly taking insights the repressed inside feelings through my work of rolling papers.

And the repetition is seen in the Nature. Like that the four seasons are repeated and flowers and leaves are created and fallen down every year, and the water circulates and is related to our lives, I tell the Nature's circulation

in my works.

Based on my works created in 2012 and 2013, this thesis is composed as follows.

In the Chapter I. Introduction, I described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n my works.

In the Chapter II. Discussion, I first studied some artists dealing the repetition through their art works, and described the psychological changes through some repeated behaviors seen our works in relation to the Nature's circulation. And next, I described the repeated shape expressions and color expressions using papers, and on the basis of them, separately analyzed each work of mine.

In the Chapter III. Conclusion, I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my work in the future.